

광주 음식점 인근 주말·휴일이면 교통지옥

차량 뒤엉키며 극심한 정체 법 맹점 악용 주차공간 태부족 지자체는 허가만 내주고 뒷집 주차장 조례 현실 맞게 강화해야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C웨딩홀 주변 도로가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하객차량과 나들이 차량 등이 엉키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일 토요일 정오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C웨딩홀 인근도로.

지난 3월 문을 연 이 음식점 주변은 동광주IC, 문흥IC, 제2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인근에는 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초고층 아파트까지 들어선 탓에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이날 도로에는 음식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일반 통행 차량들이 뒤엉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었다. 교통 경찰도 있었지만 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차량 차량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하객 차량이 엉키면서 음식점 주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같은 교통 대란은 음식점이 밀집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과 상무지구 등에서 매 주말·휴일이면 반복되고 있다.

시민 김용민(38·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주말이나 휴일에 나들이를 갈때면 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근에 몰려있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차량이 너무 정체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음식점들이 주차공간만 제대로 확보해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에서 새롭게 문을 연 음식점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영업에 나서면서 인근 도로 정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음식점업은 누구나 신고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탓에 일부 사업자들은 주차공간 확보는 뒷전인 채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무분별하게 음식점을 신설·운영하면서 인근 주민과 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민의 차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음식점 주변 교통 정리에 나서서

등 개인사업자인 음식점 업주의 주차안 해소를 돕는 솜씨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음식점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조례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손놓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엔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내 음식점 현황 조사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광주에담연합회에 따르면 광주에서 운영중인 음식점은 ▲서구 18곳 ▲남구 4곳 ▲광산구 3곳 ▲동구 3곳 ▲북구 3곳 등 총 31곳이다. 이들 주차인 주변은 대부분 주말·휴일이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광주시 주차장 조례와 이를 악용한 음식점 업주들의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행태 때문이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 음식점은 시설면적 100㎡당 주차면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음식점은 5000㎡ 기준 50대 주차시설만 갖추면 된다. 실제로 이 음식점은 이에 따라 시설면적이 4959㎡인 문흥동 소재 C음식점의 경우 법적으로 50면의 주차면만 갖추면 된다. 실제로 이 음식점은 북구청에 88면을 주차면수로 등록했다. 문흥동에 있는 이 음식점의 경우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최소 3~5팀이 예약을 하고 있다. 한 음식점당 300여명이 찾는다고 추정하면 하루 평균 1000여대 이상 차량이 음식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해당 음식점 업주는 "음식점 주변 교통난을 잘 알고 있지만 조례보다 더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로 주차면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 도심내 대부분의 음식점들도 교통난을 호소하는 민원에 "광주시 조례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음식점 신설·이전·증축 등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 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정차담당은 "주차마다 음식점 인근 불법 주·정차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주·정차단속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이달부터는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돈 문제 다투다 아내 숨지게 한 남편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돈 문제로 다투다 운동기구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이모(5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1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A씨를 집 안에 있던 2kg 짜리 아령으로 4차례 내리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밤 11시 4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에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축사인 이씨는 가정 불화로 2년 전부터 A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범행 당일 A씨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남편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상가매입을 위해 모 아들 7000여만원을 최근 아내가 인출해 간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모구청 소속 공무원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누드모델 도촬 가해자 사과...전남대 징계 절차

전남대학교 예술대에서 일한 여성 누드모델이 도둑촬영(도촬)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가해자인 여성 대학원생이 사과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은 지난 2일 설명자료 통해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여성 대학원생 B씨로부터 대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나이 먹어 그림에 욕심을 부리다 피해자에게 큰 실수를 범해 송구하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대 학장과 부학장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A씨의 요청에 따라 예술대학 장 명의 사과문을 단과대 누리집에 5일간 게시할 계획이다.

이에 A씨는 도촬과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대학 내에 내건 대자보를 지난 1일 거둬갔다.

대학측은 A씨가 "도촬과 성추행 과정

에서 수업담당 교수가 가해자에게 수차례 주의를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더는 교수에 대해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상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면 정식 면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 규정에 따라 가해 대학원생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과대학 교수회 소집 요청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예술대의 모델 수업 관리체계를 전면 진단해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며 "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전남대 교내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내걸고 예술대 누드모델로 일하던 도중 여성 대학원생이 자신의 모습을 도촬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대학측은 A씨가 "도촬과 성추행 과정

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 군수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전남 모 군수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1일 전남 모 지역 군수 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소속 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수천장의

연장장을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A씨가 연장장을 보낸 경우 등 혐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취업청탁금은 불법...반환 안해도 돼"...횡령혐의 무죄

취업 알선 대가로 주고받은 금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문성호 판사)은 "횡령 혐의의 기초인 A(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A씨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다. 딸의 취업을 알선해달라는 명목의 돈이었다.

앞서 A씨와 C씨는 B씨에게 국회의 아는 사람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에 B씨의 딸을 취업시켜주겠다고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다만 금품을 주고받으며 이들은 만약 취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반환하겠다고는 내용의 사실 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취업 약속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A씨는 3000만원 가운데 2100만 원을 B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취업청탁이 무산됐고,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에도 이 돈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는 않아 임의로 소비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현재, 노조 운영비 회사 지원 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A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4호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다만 이 법조항의 효력을 공장 없으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측의 지원행위까지도 규제를 못할 우려가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 두 가지 예외만 허용한다.

이에 대해 현재는 "해당 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여성인권단체 반발에...페이스북 반라사진 삭제 사과하고 복원

○...여성 상의 탈의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삭제한 SNS업체 '페이스북코리아'가 여성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물을 뒤늦게 원상복구.

○...3일 페이스북코리아는 "여성단체 '꽃피는봄'에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시의 오류로 삭제됐다. 불편을 끼쳐드

린 점 사과드립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삭제했던 해당 콘텐츠를 복원했다는 것.

○...해당 사진은 불꽃페미액션이 지난달 26일 연 '월경 페스티벌' 행사 중 상의 탈의 이벤트를 찍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페이스북은 '음란물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사진을 삭제했는데, 여성단체들은 "남성 나체는 허용하면서 여성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해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

/연합뉴스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세한 분양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민음과신택의100년기업
www.kwpower.co.kr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 답도가능)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99KW * 350기)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2차 115KW (잔여분) 57기
- 경북 의성군 8차 99KW (잔여분) 5기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 일시: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 ▶ 장소: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 ◆◆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

태양광 사업 부지 (14만8천평)
제주 아덴힐 리조트
아덴힐CC
캐슬릭스제주CC
제주신화월드
제주국제대학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총 148,260평)

태양광 설치 후 집중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안전과의 거래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50만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

UN 신기후 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1644-4192
H)010-5110-5660